

새 책

▶페이크(이진희 지음)=2006년 문학수첩 신인상으로 등단. 폭력과 광기로 점철된 세계에 고통받는 사유의 시편들을 써온 제주출신 이진희 시인의 두 번째 시집이다. 이번 시집에서는 거짓과, 속임수, 속됨을 의미하는 '페이크'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작가는 여전히 이 거짓말 같은, 출구 없는 세계를 그리고 있으며 타인에 대한 애정과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견논사람, 1만원.



▶절멸의 인류사(사라시나 이사오 지음·이경덕 옮김)=인간은 지구의 거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하지만 인간이 처음부터 특별했던 것은 아니다. 700만 년 전에 등장한 인류의 조상은 약한 존재였다. 분자고생물학자인 사시나 이사오는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유약함에서 찾는다. 그 근거를 >송곳니가 없어서 >털이 없어서 >신체적으로 불리해서 >가난해서 살아남았다는 주제로 책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부키, 1만4800원.



▶메이데이(피터 라인보우 지음·박지순 옮김)=한국의 권력자들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오랜 세월 운동의 역사 속에서 5월 1일은 노동절, 메이데이, 노동자의 날로 불려왔다. 1886년 5월 1일 시카고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위한 대규모 행진이 열린 것을 기린 것이다. 역사학자인 저자는 이러한 메이데이 130주년을 맞아 메이데이의 진정한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갈무리, 1만8000원.



▶해리 포터를 읽는 시간(신순화 지음)=해리 포터로 삶을 읽어내는 문학 에세이다. 한겨레신문사 육아사이트 '베이비트리'와 격월간 '민들레' 등을 통해 2005년부터 꾸준히 글을 써온 육아 칼럼니스트 신순화의 작품으로, 해리 포터 시리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20여년의 세상을 예리하고도 따뜻한 시선으로 써나간다. 북하우스, 1만4800원.



▶이파라파나무나무(이지은 지음)=캐성 넘치는 캐릭터로 이야기를 각인시키는 이지은 작가의 신작이다. 이번 작품의 캐릭터는 '마시멜롱'과 '털송송이'다. 하양과 까망, 작고 크고, 가볍고 무겁고, 매끈하고 부들거리고, 맑고 적다. 시각·청각·촉각 모두에서 감각적 대비를 보이는 캐릭터들이 그림책 화면을 종횡하며 감상자의 눈을 붙든다. 사계절, 1만5000원.



▶개미 요정의 선물(신선미 지음)=2006년부터 다수의 전시를 통해 국내·외에 '개미 요정' 시리즈를 알려온 동양화가 신선미의 두 번째 창작 그림책이다. 아름다운 전통 채색화 기법으로 완성한 이 그림책은 개미 요정이 선물한 옷을 입고, 할머니와 엄마가 가장 그리운 때로 되돌아가는 여정을 담았다. 이를 통해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와 가족애를 불러일으킨다. 창비, 1만4000원.



통일의 미로, 누구도 아닌 국민의 힘 중요

정세현 회고록 '판문점의 협상가'

40년 남북 관계 최전선에 과거 경험 바탕 방향 제시

북한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면 출근길 라디오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곤 한다.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후에도 그랬다. 기대와 희망, 우려가 교차하는 남북의 현실에서 그는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오늘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 의장이다. 그는 1990년대 북핵 위기 당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거쳐 2000년대 6자 회담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한반도의 절체절명의 순간을 헤쳐왔다.

지난 40여 년간 남북관계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온 그의 육성이 담긴 회고록이 나왔다. 박인규 프 레시안 발행인과 대담한 '판문점의 협상가'다.

"대북 전문가는 많지만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사람은 그 하나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사후 공개된 메모엔 정세현 전 장관에 대한 평이 그렇게 적혔다. 전임 정부의 통일부 차관이었던 정세현은 매우 이례적으로 차기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 직책으로 발령된다. 부시 미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통해 북한을 '악의 축'으로 불렀던 2002년 1월 29일엔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한다.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는 등 대외적으로 악조건만 형성되는 시절에 그는 금강산 관광 사업, 개성공단 유치에 매진했다. 대다수 여론이 미국과 일본이 먼저 들어간 뒤에 남한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그는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를 해결하려 했다.

2년여 전,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평화가 금방 도래할 듯 보였지만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냉랭해졌다. 미국 대선이 있는 2020년 안에 북미 협상의 돌파구가 열릴 가



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의 말대로라면 '끝도 시작도 없는 통일의 미로'에 서있다.

엄중한 이 시기에 정 전 장관은 '국민의 힘'을 말했다. 탈냉전 시대로 규정되는 1990년대부터 한미동맹은 미국이 오히려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 되었다는 그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의 주인인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상황을 주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습관적으로 미국에 사사건건 허락받듯 물어보는 자세부터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비, 3만원. 전선회기자

오로지 사랑... 나는 당신으로 시를 쓰지요

이원하 산문 '내가 아니라 그가 나의 꽃'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란 시로 단숨에 우리 문단에 떠오른 이원하 시인. 그 시를 표제로 단 시집을 낸 시인이 고백과도 같은 내밀한 이야기들로 첫 산문집을 냈다. '내가 아니라 그가 나의 꽃'이다.

제주, 내팔, 부다페스트로 이어지는 여정 속에 간간이 그곳의 풍경이 스민 사진이 더해진 산문들은 앞서 출간한 첫 시집의 시와 결을 같이 한다. '동경은 편지조차 할 줄 모르고', '눈 감으면 나방이 찾아오는 시간에 눈을 떴다', '서운한 감정은 잠시라도 좋거나 쉬지 않네요'와 같은 산문의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겠다.

시인은 "혼자 살고 술은 약하다는 말은 사실 구조 요청 메시지"였다고 했다. 이마를 내놓고 다니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여자의

말에 가위를 들고 온 남자는 앞머리를 만들어주곤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육지로 가버린다. 남자가 온다는 기약이 없자 시인은 편지 아닌 편지를 쓰게 된다. 그 편지의 시작이 이랬다. 저 아직도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

'오직 사랑으로 추동되는'(황인찬 시인) 구체적인 장면과 문장들은 계속된다. '당신이 꽃으로 글을 쓸 때 나는 당신으로 시를 쓰지요'에서 시인은 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털어놓는다. "시를 쓰면 더 예뻐할 것 같았고 나아가 시인으로 등단하면 더 예뻐할 것 같았어요." 남자는 그런 줄 모른다. 시인은 주머니처럼 여태 속마음을 숨기고 있다. 급기야 시인은 "당신에게 돌아오는 내 인생이 나는 좋아요"라고 말한다. "세상 모든 사



람들이 당신을 포기하면 좋겠어요. 나만 당신을 잡게요."

이 산문집에서 시종 경이체로 쓰여진 문장들은 시인이 그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독자들에게만 털어놓는 사연 같다. "꺼내지 못한 말 한마디가 마음 속에 살아"서 입술에만 머물렀던 적이 비단 시인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기에 우린 그 사랑을 응원하게 된다. 달, 1만4000원.

전선회기자 sunny@ihalla.com

이 책 문상금 시집 '첫사랑'

별빛 쏟아지는 서귀포에 띄운 연서

여기, 눈먼 사람이 있다. 서귀포가 낯은 사랑이다. 아득히 먼 시절부터 한 자리를 지켜온 하늘은 버티는 힘을 가르쳤고 서귀포에 사는 곁 고운 사람들은 감성을 키워줬다. 문상금 시인이 고향에 띄운 연서들로 직접 표지와 삽화를 그려 넣은 시집 '첫사랑'을 묶었다.



서귀포의 문상금 시인이 시집 '첫사랑'을 통해 별빛 쏟아지는 고향의 삶과 풍경을 노래했다.

시인은 서귀포에서 쏟아져내리는 별을 본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따뜻한 별// 가만히/ 불러만 보아도/ 따뜻한 별'('나의 별에게')이다. 그곳에선 '초록인 것들은/ 초록색 그대로// 흰 파도는/ 파도꽃 그대로' 빛이 난다. 별은 시집의 처음에 등장한 이래 서귀포를 그린 시편마다 반복된다.

그가 읊은 '미친 사랑의 노래' 연작은 서귀포의 오래된 길에 머문다. 도심의 명동로다. '잠시 길을 잃었지만/ 아직도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이/ 밤마다 모여들어/ 불야성을 이루는 곳// 때로는 푸르고 시린/ 별을 품은 사람들이

고향 향한 눈먼 사랑 노래
있는 그대로 빛나는 풍경
"누군가의 따뜻한 별 되어"



하루를 끝낸 뒤 명동로에 가서 꿈을 본다.

폭빛 바다 가르느 물살에 무지개가 뜬다는 서귀포엔 예술가들이 산다. 붉고 경사진 알자리 동산의 피난화가 이종섭, 이여도를 건너오는 구부정한 사내를 담은 화가 변시지, 탈속의 행초서와 파체(破體)를 완성한

서예가 현중화가 그들이다. 바다와 섬을 노래해온 구순의 이생진 시인도 서귀포와 인연이 있다.

시집 말미엔 시작(詩作)을 위한 단상과 산문을 실었다. 매일 일기처럼 시를 쓴다는 시인은 혼신을 다해 시 창작을 이어가겠다며 보폭 해안의 손바닥 가시선인장이 있는 풍경으로 이끈다. 울퉁불퉁한 물집에 상처가 난 외형을 지닌 가시선인장에서 외로움을 견디며 약삭같이 살아가는 삶을 떠올린 시인은 그만 눈물이 난다. 산다는 건 저마다의 탐을 쌓으며 서두르지 않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이라는 시인은 하늘을 올려본다. '누군가의 가장 따뜻한 별이 되어/ 오래도록 떠있고 싶다'('어느 날 문득 별이 보일 때')는 바람이 다시 스친다. 한그루, 1만원.

전선회기자 sunny@ihalla.com

novita
A KOHLER COMPANY

사랑하는 가족에게
노비타 비데
선물하세요 孝

이벤트 기간 : 2020.05.11 ~ 06.30

novita
노비타 제주점
(구, 제민일보 맞은편)

신광로터리 | 빙스 | 요양병원 | 신제주로터리 | 마린나사거리 | 마리나호텔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1
제주시 연삼로17(연동)

<p>BD-AFE50N</p> <p>생활방수</p> <p>3년무상A/S</p> <p>₩299,000 ₩229,000</p>	<p>BD-N443(리모컨)</p> <p>방수비데</p> <p>₩299,000 ₩259,000</p>
<p>BD-AE91</p> <p>방수비데 (3way 노즐)</p> <p>₩269,000 ₩229,000</p>	<p>BD-CD51N</p> <p>방수비데 (원적외선 건조)</p> <p>보상판매</p> <p>₩299,000 ₩229,000</p>